

靑 “北 수해 때문... 구구한 억측 말라”

북측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10월 초로 연기한 것은 지난 7일부터 북한 중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7~11일 대동강 중·상류에 내린 비의 양은 524mm로 '최악의 홍수'였던 1967년 8월25~29일의 472mm보다 52mm나 더 많고, 같은 기간 평양시와 양덕군은 378mm와 553mm로 40년 전에 비해 각각 224mm와 214mm나 더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북한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결과 303명 사망·실종, 이재민 8만8천여가구 30여만명, 전체 농경지 11% 이상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와 철도, 통신망이 끊기고 침수돼 곳곳에서 교통과 통신이 마비됐다.

특히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시내가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 남북정상회담 10월 연기에 민감한 반응 평양 물폭탄... 사망·실종 303명, 이재민 30만명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북측으로선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1차 실무접촉 때 북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 때 이용할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는 이번 비에 피해가 없다고 말했으나, 그 하루 전 남측의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개성에서 만난 북측 관계자들은 파손된 곳을 우회하느라 평양시 개성까지 6시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설사 고속도로 자체는 지대가 높아 큰 피해가 없더라도, 노 대통령의 방북 행렬이 평양을 향할 때 지나치는 곳곳에 수마가 활판 자국이 선명할

것이고, 도시마다 수해복구에 여념 없을 주민들을 환영객으로 동원하는 것도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해라는 1차적 이유뿐 아니라 한미합동군사연습 기간을 피하기 위해 정상회담의 연기를 제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북측은 8월 중 각종 회담과 남북행사를 정하면서 UFL 문제를 1차적으로 고려했다”며 “남북한은 이미 이 문제까지 감안해 회담 일정에 합의했던 만큼 북측이 새삼 UFL에 반발해 회담 연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으로 남측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의 일정을 한 달 이상 늦춰 대통령 선거와 밀접한 시기에 치름으로써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치적 목적을 피했다면 10월 초가 아니라 더 지나서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으나 일각의 관측에 대해 최근 북한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기로 결정된 긴급 구호물품을 이른 시일 내에 북측에 전달토록 통일부에 지시하는 등 대북수해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한국측 협상 미온적, 인질 살해하겠다”

탈레반 살해위협 재개...가족들 다시 긴장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지난 18일 오전(현지시간) “한국 측이 예전처럼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인질 1~2명을 더 살해할 수 있다”고 위협, 한국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3일 여성인질 2명을 석방한 뒤 탈레반이 밝힌 첫 살해 위협이다.

그러나 가즈니주 탈레반 지역 사령관인 압둘라 잔은 18일 저녁 국내 언론과의 간접 통화에서 이틀간 시간을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말해 탈레반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측과 오늘 전화접촉을 했으며 이 접촉에서 한국 측이 이틀간 시간을 달라고 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틀이란 일요일(19일)과 월요일(20일)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마디는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16일 대면협상에서 한국 측이 하루 말미를 요청해 동의했는데 하루 반이 지난 오늘(18일)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한국 측이 인질 2명 석방 뒤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측이 이렇게 협상에 미온적이라면 남은 인질 1~2명을 더

살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우리의 요구(탈레반 수감자 8명 석방)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 추가 살해 위협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다음날인 19일 피랍자 가족들은 지난 며칠간의 안도감을 뒤로 한 채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경자·김지나씨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잠시 마음을 놓았던 가족들은 18일 오후 두 명의 인질 석방 후 첫 살해위협 소식이 전해지자 외교부를 통해 사실확인여부 등을 다시금 부산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질 안전 귀환 최우선... 유연하게 대처하라”

盧대통령 아프간 대책본부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15층에 마련된 ‘아프간 피랍사태 대책본부’에 들어 아프간 현지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당초 예정에는 없었던 것으로 오전 직접 시에 의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깜짝 방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외교장관도 다른 일정에 참석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외교부로 달려왔으며, 노 대통령의 대책본부 방문 보고자리에 이날 새벽 6시에 아프간 현지에서 귀국한 현지대책반장이었던 조종표 1차관과 김호영 2차관, 김재신 아태국장 등이 배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5분부터 45분 동안 조 차관과 김 국장으로 부터 아프간 현지 대응체계와 현지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외교통상부 청사에 설치된 아프가니스탄 피랍 대책본부를 방문, 지난 4주 동안 아프간 현지 대책반을 이끌다 이날 새벽 귀국한 조종표 외교부 1차관(오른쪽)으로부터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 및 안전대책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뒤 현지 대책반원들과 현지에 잔류중인 한국인들의 상태 및 안전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독일 여기서 피랍

과 독일 경찰 3명 피살 사건이 발생한 데 우려를 표명한 뒤 “외교부가 고충이 많았으나 국제사회의 원칙,관계를 존중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귀환이 최우선”이라며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유엔, 한국에 ‘단일민족’ 이미지 극복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내에 사는 모든 인종·민족·국가 그룹 간의 이해와 관용을 위한 인권 인식 프로그램뿐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

학교의 교과목에 포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놓고 지난 9월과 10월 이를 동안 제네바에서 심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개 항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8일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변종석 여사 타계 애도

북측에서 고 정주영 명예회장 부인 변종석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19일 현대에 따르면 북측은 18일 현대아산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변종석 여사의 타계를 애도했다.

조전은 고인의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내용으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정호 현대그룹 회장 앞으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 각각 보내왔다. /연합뉴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 19일 스위스 알프스의 알레치 빙하 앞에서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누드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퍼포먼스에는 남녀 자원봉사자 600여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범여권 “수해 때문이라니 이해” 한나라 ‘대선 효과 노리나’ 경계

정치권 ‘이해득실’ 분주

정치권은 18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초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배경과 향후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각 대선주자 캠프는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데다 범여권 국민경선 일정표(9월15일부터 10월14일)와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대선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득실 계산에 골몰하는 표정이 읽혀진다.

일단 정상회담 연기를 놓고는 정파별로 엇갈린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범여권은 정상회담의 갑작스런 연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선국면에서 ‘병화이슈’를 계속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연기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내포된 것 아니냐며 대선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표정이 뚜렷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용 정상회담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수해가 이유라고 하지만 그 뒷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정상회담을 불과 대선 2개월 앞까지 연기했다는 것이 대선용 정상회담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품격 동 최선의 VIP로 모십니다

RODEM 로템갤러리

34억 48만 원

문의: 011-520-7033 / 011-520-0811

RODEM 로템갤러리

RODEM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30%~50% 할인

011-520-7033